

‘고독사’ 50대 남 최다 여성의 5배...평균 26일만에 발견

나주영 부산대 법의학 교수 논문 평균 알코올농도 0.074% 대책필요 상당수 이혼·별거...20~30대 6.3%

고독사는 노인층보다도 중년인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자의 상당수가 이혼이나 별거 상태였으며, 알코올중독·약물 중독과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 사회 문제로 꼽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물론 약물·알코올 장애와 관련해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학계에 따르면 나주영 부산대 의대 법의학

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법의부검 자료로 분석한 고독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총 1만5066건이었으며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의 실태조사 기간을 고려해 법의병리학자인 나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법의부검 자료는 경찰의 수사 자료 및 부검 결과가 포함된 자료로서 죽음을 설명해주는 가장 적합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분석 결과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28건(19.3%)이었다. 이 중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나이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 28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20~30대가 고독사한 경우도 8건(6.3%) 있었다.

이혼이나 별거 상태였던 사례가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파괴된 경우 고독사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후 고독사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평균 기간

은 26.6일이었는데, 숨진 뒤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사례만 보면 평균 기간은 39.9일로 80건(62.5%)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했다. 변색과 팽창되는 부패 단계에서 시신이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독사를 가장 많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건 이웃 또는 건물관리인, 임대인 등이었다. 65명이 평균 29.7일 만에 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가족이 시신을 발견하기까지는 평균 17.6일이 걸렸다. 복지 공무원에 의해서는 평균 12.3일 만에 발견됐으나 수도·전기·가스 검침 등 일상 공무 수행 중 시신을 발견한 경우를 포함하면 평균 67.8일이 걸렸다.

시체검안서로는 80% 이상에서 불분명했던 사망 종류가 부검 후에는 93%에서 확인되는 등 사망 원인이 명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은 중독과 직결사가 많았다. 고독사의 경우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0.03%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자체력 상실, 판단력 감소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독사 사망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였다. 시신이 부패하면 체내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만 따져보면 128명 중 80명이 이에 해당했고 이들의 평균 농도는 0.109%였다.

특히 생전 사회적 고립 이유가 알코올 관련 문제로 파악된 사례도 43명으로 적지 않았다. 이 중 10명은 부검에서 사인이 파악됐는데 간경변증 등 알코올 관련 질환이나 급성알코올중독, 만성알코올중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북,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3년만에 고체연료 단계 고도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천명한 지 3년 만에 ‘기습 공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단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때 음속의 10배 이상 속도(섭씨 20도 기준 시속 1만2350km)로 비행한 것으로 파악돼, 북한이 무기 판도를 바꿀 ‘차세대 게임 체인저’ 개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고체연료 기반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전담 감행,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군은 해당 미사일이 약 1000km를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분석했으며,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 약 50km 이상으로 최소 500km를 비행했다고 평가했다.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한미일이 실시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지만 ‘분석’은 각국이 직접 하는 만큼 초기 판단에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저고도로 변칙 기동을 하면서 지구 곡면의 영향으로 일본측 이지스구축함 등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항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북한은 같은 해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첫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5일과 11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네 번째인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자세한 성능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과소평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의 속도는 음속의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시속 6120km 이상)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왼쪽부터 2024년 1월 14일에 발사된 고체연료 추진 극초음속 미사일, 2022년 1월과 2021년 9월의 액체연료 추진 극초음속 시험발사 장면. /연합뉴스

과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만약 북한이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면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3로 요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한국과 팜 미군기지, 주일미군기지 등에 배치된 최신형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요격탄의 속도는 마하 4~5가량이다. 마하 10 이상으로 변칙 기동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PAC-3로 막아내는 게 어렵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국과 팜 등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8 정도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

광주 중앙공원1지구아파트 후분양편 서울 평균 분양가보다 높아질수 있다

3.3㎡당 최고 3822만원 예상 사업자 2574만원 선분양 요구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내 신축 아파트의 후분양 평균 가격이 서울 아파트 평균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예측이 나오며 따라 선분양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후분양 전제 분양가는 3.3㎡당 3495만~3822만원으로 예상됐다. 2021년 사업조정협의회에서 3.3㎡당 1870만원에 후분양하기로 협약한 것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 3495만원)보다 높고,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평균 3963만원) 등 최근 서울 지역 후분양 아파트 분양가와도 맞먹는 분양가다.

산학협력단은 후분양 시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빚고을중앙공원개발(빚고을SPC)의 PF 대출 규모가 2조 7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고, 금리 부담을 분양가 상승의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조달금리 12% 적용 시 분양가는 3.3㎡당 3495만원, 15% 적용 시 3822만 4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후분양 시 고분양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분양받을 시민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빚고을측이 지난해 말 광주시에 제시한 후분양 조건 분양 희망가는 3.3㎡당 3800만원~4200만원에 이른다.

산학협력단의 분석을 전달받은 광주시 자문위원회는 “2023년 광주 지역 분양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지역 내 분양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검증에서 선분양 전환 조건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민선 7기 때부터 수차례 반복돼 온 사업 원점 재검토에 따른 사업 지연, 민선 8기 들어 불거진 풍암저수지 개발 방식 논란에 따른 사업 차질 등 광주시 특유의 더딘 행정 관행과 고금리·고물가·고임금 등이 겹친 게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개발 사업자인 빚고을 SPC 측은 광주시와의 2021년 합의안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 해제 시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절감 비용을 기부채납 상향 등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하고, 3.3㎡당 2574만원에 선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빚고을 관계자는 “광주시가 선분양-후분양 조건을 동시에 검증하고 조속히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면서 “승인이 제때 안 되면 자금을 투자한 대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계약변경을 해야 하고 공사 일정이 늦어질수록 분양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기존대로 후분양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자와 협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 후분양 조건 타당성 검증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고, 업체 측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선분양 조건 여부도 검토하며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00㎡ 규모이며, 이 중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는 39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2772 세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개발부지 매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시흥대로변

매매금액 : 280억
대지면적 : 1,379㎡(417평)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을 잇는 시흥대로 광대로변에 위치한 자산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더블역세권 위치
- 매도자 명도조건이며, 제소전화해 완료
- 추천용도 : 오피스텔 및 근생 개발, 자동차전시장 및 판매장

대표 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케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염 정 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빚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뭉툭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행안내

1월20일(토)
▲광주호신회 1월 20일(토) (제665차 정기산행 강원도 선저령 트레킹)04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4시 40분 진월동 육교 밑 04시 50분 백운우체국 05시 롯데백화점 05시 10분 광주예술의전당 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光州日報
· **케냐**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